

唐宋時期『傷寒論』形成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 教室 金基郁 · 朴炫局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the formation of *ShangHanLun*(傷寒論) during *TangSong*(唐宋) Period

ShangHan(傷寒) broadly means all kinds of diseases caused by exogenous pathogenic factors, and narrowly means the exogenous diseases by wind(風) or coldness(寒).

After *ZhangZhongJing*(張仲景) wrote *ShangHanZaBingLun*(『傷寒雜病論』) in *DongHan*(東漢) era, so many therapists stated their own viewpoints on *ShangHan*(傷寒) that it is estimated up to over 530 essays, about *ShangHan*.

ZhangZhongJing's *ShangHanZaBingLun* truly was embryo of systematic treatment of exogenous factored fever, while the essay was not so perfect in theoretical delicacy, neither kind enough in explaining the insides of diseases, nor clear in locating the symptoms. So it was a little difficult in theoretically relating treatment rule with prescription, and was hard to accomplish perfectly determined treatment. Especially his essay was composed mainly of provisions, which was to be lacked in systematic composition, and naturally was abstruse to general therapists.

So even after *WangShuHuo*(王叔和) arranged his work, it was not well enough to be popular to public, from era of *Wei · Jin · NanBeiChao*(魏 · 晉 · 南北朝) to that of *Sui · Tang*(隋 · 唐). And as we see in *WaiTaiMiYao*(『外臺秘要』), he was only to be included in the family of *ShangHanBaJia*(傷寒八家), the eight prominent therapists in *ShangHan*, and was not consented as great as he is recognized now.

In the sense of medical history, the forming and progress of the knowledge of *ShangHanLun* run through three steps as following. The first step is the era from *Wei · Jin · NanBeiChao* to *Sui · Tang*, when the original text of *ShangHanLun* was collected and arranged. The second is the era of *Song · Jin · Yuan*(宋 · 金 · 元), when the text was variously annotated. The third is the era of *Ming · Qing*(明 · 清), when the errors on the original text was corrected and many disputes occurred among scholars.

Here this writer studied, in the developmental view of point, the process of how *ShangHanXue* was born and formed, and diversified theoretically as *ShangHanLunXue*, and

how it came up later.

First I studie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 of the time when *ShangHanXue* formed. And *MaiJing*(『脈經』) and other sources containing the contents about *ShangHanZaBingLun* were studied and the contribution of *WangShuHuo* to *ZhangZhongJing*'s work was lighted up.

From the era of *DongJin·NanBeiChao*(東晉·南北朝) to that of *Sui·Tang*, mainly around books like *QianJinFang*(『千金方』) and *WaiTaiMiYao*, the viewpoints of many therapists of *ShangHan* in those days was analysed. The surrounding factors of forming *Tang* eras' text *ShangHanLun* and *KangZhi*(『康治』) and *KangPing*(『康平』) dynastys' texts were investigated, and also *GaoJiChong*(高繼衝)'s *ShangHanLun* in *LiuChao*(六朝) era was studied, all of which helped to search how the original text was conveyed and transformed era to era.

In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it is no exaggeration that the periodical change in theories and clinic therapies are just the one in the knowledge of *ShangHan*. In this context, this writer researched in theoretical history of *ShangHan*, from the ancient age to *Sui·Tang*, and lighted up the developmental tides all over the oriental medicine.

Additionally, results of the research into stories about how *ShangHanZaBingLun* was wandered around and inherited from age to age.

Key Word : *TangSong*(唐宋), *ZhangZhongJing*(張仲景), *ShangHanZaBingLun*(『傷寒雜病論』), *WangShuHuo*(王叔和), *MaiJing*(『脈經』), *QianJinFang*(『千金方』), *KangZhi*(『康治』) and *KangPing*(『康平』), *GaoJiChong*(高繼衝)

차례

I. 序論

II. 本論

1. 張仲景의 事迹과 『傷寒雜病論』
 - 1) 仲景과 王仲宣
 - 2) 仲景의 長沙太守說
 - 3) 仲景이 『伊尹湯液』을 論廣
 - 4) 『傷寒雜病論』의 散亂
2. 『傷寒雜病論』의 變遷 狀況
 - 1) 原始 版本
 - 2) 『脈經』본의 『傷寒雜病論』
3. 孫思邈의 『千金要方』, 『千金翼方』과 唐本 『傷寒論』
 - 1) 『千金方』과 『傷寒論』
 - 2) 唐本 『傷寒論』이 發見된 過程
4. 康治本과 康平本 『傷寒論』
 - 1) 康治本·康平本の 成書 背景
 - 2) 康治本의 特徵
 - 3) 康平本의 特徵
 - (1) 構成
 - (2) 「序文」에 對한 小考
 - (3) 「傷寒例」에 對한 小考
5. 宋本 『傷寒論』과 高繼衝本 『傷寒論』
 - 1) 宋本의 沿革
 - 2) 唐本 『傷寒論』과 宋本 『傷寒論』의 比較
 - 3) 高繼衝本 『傷寒論』
 - (1) 高本의 流傳 過程
 - (2) 高本의 特徵

III. 結論

參考文獻

I. 序論

‘傷寒’이란 넓은 의미에서 外感熱性 질병을 통칭하는 말이며, 좁은 의미로는 風寒邪에 의하여 생긴 外感病으로 寒에 傷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¹⁾ 東漢代에 張仲景이 『傷寒雜病論』을 저작한 이후에 수많은 醫家들이 傷寒에 관하여 각자의 主張과 見解를 피력하였으니, 『醫籍通考』에 기재된 『傷寒

1)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정담, 1988. pp.734~735.

論』에 관련된 서적만 하더라도 530여 종류나 보인다.²⁾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은 실로 傷寒 理論의 萌芽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理論의 緻密性和 證候에 따른 病變의 性質과 部位의 설명에는 未備하였다. 따라서 治療 原則과 方藥이 疾病의 證候와 이론적으로 완전히 연계되지 않아 진정한 의미에서 변증논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특히 本書는 條文式으로 되어 있어 系統性이 적은 까닭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王叔和가 정리한 뒤에도 魏·晉·南北朝代에서 隋·唐代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으며,³⁾ 『外臺秘要』에서 보듯이 '傷寒八家'의 하나로써 일반 傷寒學家和 같은 반열에 끼인 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醫史學的으로 '『상한론』학'의 형성과 발전은 대체로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1단계는 『상한론』의 原著를 收集하고 整理하는 初期인 위·진·남북조대에서 수·당대까지이고, 제2단계는 『상한론』의 원저에 관한 注釋을 闡發한 中興期인 송·금·원대이며, 제3단계는 주로 『상한론』의 錯簡을 校訂하고 '三綱鼎立' 등의 연구 방법이 대두되어 여러 학파간에 치열한 논쟁을 일으킨 成熟期인 명·청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論者は 『傷寒論』이 胎動되고 散佚되어, 다시 定本의 形態를 갖추게 되는 시기인 唐宋時期 『상한론』 형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張仲景의 事迹과 『傷寒雜病論』에 관하여 살펴본다.

둘째. 『傷寒雜病論』의 變遷 狀況을 原始版本과 『脈經』本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千金翼方』을 중심으로 唐本 『傷寒論』에 관하여 살펴본다.

넷째. 康治本·康平本 『傷寒論』이 成書된 배경과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섯째. 宋本 『傷寒論』의 沿革과 唐本과의 비교, 高繼衝本 『傷寒論』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양 의학사에서 의학 이론 및 임상 의 변천사는 상한학의 변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논자는 唐宋時期 『傷寒雜病論』傳本의 進書과 流傳史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張仲景의 事迹과 『傷寒雜病論』

史書에서 張仲景의 事迹이나 『傷寒雜病論』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고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唐·甘伯宗이 찬한 『名醫傳』에서 이 책이 이미 佚失되었다고 하였고 중경의 사적에 관하여서는 단

2) 裘沛然 외22인 :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p.205~700.

3) 洪元植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45.

지 “南陽人，名機。仲景乃其字也。舉孝廉，官至長沙太守。始受術于同郡張伯祖，時人言識用精微過其師”⁴⁾ 라는 몇 구절만이 北宋·林億 등이 교정한 『傷寒論·序』에 나타나있다. 따라서 장중경의 사적에 관하여 아래에서 고증하기로 한다.

1) 仲景과 王仲宣

張仲景에 대하여 正史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王仲宣에 관한 기사이다. 『後漢書志 第二十三·郡國四』에서 荊州에 南陽郡, 江夏郡, 長沙郡 등 7군이 있고 37개의 城, 528, 551戶, 인구 2, 439, 618명이라 하였다.⁵⁾ 張氏 姓은 南陽의 명문 귀족이다. 『後漢書』 권74上 「劉表傳」에 의하면 유표는 初平4년(AD. 193)과 興平元年(AD. 194)에 천하의 현량호걸을 모집하고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사망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荊州로 모여들었다.⁶⁾ 『三國志』 권21 「王粲傳」에 의하면 “王粲, 字仲宣……獻帝西遷, 粲徙長安, 左中郎將蔡邕見而奇之”라 하였고, 또한 “年十七(王仲宣의 生沒年代는 177~217년이며, 17세면 AD 193년에 해당된다) 司徒辟詔除黃門侍郎, 以西京擾亂, 皆不就. 乃之荊州依劉表, 表以粲貌寢而體弱通脫, 不甚重也”라 하였다.⁷⁾ 『文選』 권23에 王仲宣이 형주에서 「七哀詩」를 지었는데 이는 長安에서 荊州로 가는 도중에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것이다. 張仲景이 王仲宣을 만난 기록이 『太平御覽』 권722 「方術部」, 권739 「疾病部」 및 皇甫謐의 『甲乙經·序』에 나타난다.

『太平御覽』 권722에서는 “『何顛別傳』曰：同郡張仲景, 總角造顛……王仲宣年十七, 嘗遇仲景. 仲景曰：君有病, 宜服五石湯……後至三十年 疾果成 竟眉落. 其精如此. 仲景之方術 今傳于世”라 하였고, 『太平御覽』 권739에서는 “『何顛別傳』曰：張仲景過山陽王仲宣, 謂曰：君體有病……”이라 하여 두 곳에서 인용한 것이 같다. 『何顛別傳』은 이미 실전되었으나 『後漢書』 권97 「黨錮列傳」에 「何顛傳」이 나타나는데 “何顛 字伯求 南陽襄鄉人也”라 하여 何顛이 南陽人으로 仲景과 同鄉人임을 알 수 있으며, 앞서 甘伯宗이 중경을 南陽人이라 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 仲景이 仲宣을 만난 사실은 『甲乙經·序』에도 나타난다. 이 序文은 魏·甘露3년(AD. 258)에 쓴 것으로 앞에서 王仲宣이 죽은지 42년 후이다. 『何顛別傳』을 언제 누가 저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甲乙經·序』에는 더욱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仲景見侍中王仲宣, 時年二十余, 謂曰：君有病, 四十當眉落, 眉落半年而死. 令服五石湯可免. 仲宣嫌其言忤, 受湯勿服. 居三日, 見仲宣, 謂曰：服湯否? 曰：已服. 仲景曰：色候固非服湯之診, 君何輕命也! 仲宣猶不言, 後二十年果眉落, 後一百八十七日而死, 終如其言.”⁸⁾이라 하였고, 『三國志』 권21 「王粲傳」에 “建安二十一年從征吳, 二十二年春道病卒, 時年四十一”⁹⁾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仲景이 仲宣을 만난 시간이 仲宣이 21세 되는 때로 『감을경·서』에서 “後二十年果眉落, 後一百八十七日而死”라고 한 시간과 부합한다.

4) 朱佑武 校注：『宋本傷寒論校注』 「宋刻傷寒論·序」,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p.1

5) 范曄：『後漢書』, 岳麓書社, 1994. p.1495.

6) 上揭書：p.1024.

7) 陳壽：『三國志』, 中華書局, 1982. pp.597~598.

8) 皇甫謐：『針灸甲乙經·序』,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

9) 『三國志』：前揭書, p.599.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이 荊州의 襄陽이다. 따라서 張仲景이 이 때에 역시 襄陽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仲景이 언제 南陽에서 荊州로 갔는지는 확실하게 고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建安2년(AD. 197)에 형주에 있었음이 史實로 증명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경이 『傷寒雜病論』을 언제 어디에서 撰하였는지를 고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仲景의 長沙太守說

仲景이 長沙太守를 지냈다는 말이 『後漢書』, 『三國志』에는 없으며 甘伯宗의 名醫傳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明·趙開美가 輯刻한 『仲景全書』 가운데 宋本 『傷寒論』 및 『註解傷寒論』에서 “漢長沙太守張仲景”이라 하였다.

『後漢書』 권105 『劉表傳』에 “建安三年(AD 198년) 長沙太守張羨率零陵, 桂陽三郡畔表 表遣兵攻圍破平之”라 하여 그 당시 長沙太守는 張羨이었다. 張羨은 劉表가 禮로써 대접하지 않자 반기를 들고 曹操에게 투항하였다. 이에 劉表가 張羨을 공격한 시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長沙太守張羨反表, 表圍之, 連年不下, 羨病死. 長沙復入其子惲, 表遂攻并惲. 南收零桂, 北據漢川, 地方數千里, 帶甲十餘萬”¹⁰⁾이라는 기사가 있다. 張羨이 죽고 그 아들인 張惲이 태수직을 이었으나 劉表가 이를 평정하였고 이어 長沙太守를 임명하였을 것이다. “漢長沙太守張仲景”이란 기록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張仲景은 張惲 뒤에 長沙太守를 지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시기가 建安3년으로부터 몇 년 이후가 된다. 그러나 『후한서』나 『삼국지』에는 실려있지 않다.

3) 仲景이 『伊尹湯液』을 論廣

『甲乙經·序』에서 “仲景論廣『伊尹湯液』爲十數卷 用之多驗.”¹¹⁾이라 하였다. 이미 『伊尹湯液』은 書名이 佚失된지 오래되었다. 班固의 『漢書·藝文志』에서 『湯液經法』 32권이 저록되어 있으나 이 책도 일실된지 오래이다. 宋·王應麟의 『漢書藝文志考證』에서 “湯液經法三十二卷” 아래에 “皇甫謐曰：仲景論伊尹『湯液』爲十數卷”¹²⁾이라 注하여 仲景의 책은 『湯液經法』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청대 目錄學家인 姚振宗은 『漢書藝文志條理』에서 “湯液經法三十二卷” 아래에 “按後漢張機仲景或取是書論次十數卷也”¹³⁾라 주해하였다.

또한 요진종은 『後漢書·藝文志』에 있는 “張仲景方十五卷” 아래에서도 “按王應麟『漢藝文志考證』引皇甫謐曰：仲景論伊尹『湯液』爲十數卷. 按『漢志』經方家, 有『湯液經法』三十二卷. 仲景論定者, 盖卽是書.”¹⁴⁾라 주해하였다. 王應麟과 姚振宗이 고증한 것에 따르면 皇甫謐이 말한 『伊尹湯液』은 바로 『漢書·藝文志』의 『湯液經法』이다.

皇甫謐은 일찍이 『伊尹湯液』을 閱讀하였고, 또한 『甲乙經·序』에서 “王叔和撰次仲景遺論”¹⁵⁾한 것

10) 『後漢書』：前揭書, p.1044.

11) 『針灸甲乙經·序』：前揭書, p.14.

12) 李茂如 외2人：『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

13) 上揭書：p.15.

14) 上揭書：p.28.

15) 『針灸甲乙經·序』：前揭書, p.14.

으로 볼 때 『傷寒雜病論』은 『伊尹湯液』이라는 古醫書를 기초로 “論廣”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論”은 “研究”와 “條理化”이고 “廣”은 “擴大”와 “補充”을 뜻한다. 중경은 『이운탕액』을 연구하여 조리 있게 하고 또한 일부 내용을 보충·확대시켜 이 책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중경의 『상한론·서』에서 “勤求古訓, 博采衆方”¹⁶⁾하였다는 구절과 바로 상합한다.

『傷寒論·序』에서 또한 “撰用『素問』, 『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臚藥錄』并『平脈辨証』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¹⁷⁾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撰用”의 “撰”은 “選”으로써 “선택”을 뜻한다. “勤求古訓”은 『湯液經法』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傷寒論』의 주체, 주요 내용은 『이운탕액』에서 비롯되었고 한편으로 「평맥」, 「변맥」 등을 비롯한 앞의 여러 책들을 선택하여 실었을 것이다.

부송 임억이 『傷寒論·序』에서도 『상한론』은 이운의 『탕액』을 기초하여 撰成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伊尹以元聖之才, 撰用『神農本草』以爲『湯液』, 漢張仲景廣『湯液』爲十數卷, 用之多驗. 近世太醫令王叔和撰次仲景遺論甚精, 皆可施用. 是仲景本伊尹之法, 伊尹本神農之經, 得不謂祖述大聖人之意乎?”¹⁸⁾라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면 중경은 자신의 임상적인 경험과 연구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또한 漢末 이전 각종 중요 의서의 내용을 편집하고 총결하였다. 그리고 『伊尹湯液』이 『傷寒論』을 구성하는 주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傷寒雜病論』의 散亂

중경의 『상한론·서』에 의하면 『상한잡병론』은 건안10년 전에 찬하였다. 중경이 건안2년에 왕중선을 만났을 때 醫名이 널리 알려졌으나 아직 『상한잡병론』을 저작하기 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안3년 장사 태수 張羨이 劉表를 배반하고 曹操에게 가담하자 劉表가 張羨을 징벌한 후에 중경으로 하여금 長沙를 다스리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에 『상한잡병론』 16권을 저작하였을 것이다. 『상한론·서』에서 “雖未能盡愈諸病, 庶可以見病知源, 若能尋餘所集, 思過半矣.”¹⁹⁾라 하여 중경이 이 책을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 있을 때에는 잘 보존되었음이 틀림없다.

중경이卒한 연대는 확실하게 고증할 수는 없지만 그는 王粲보다 나이가 많고 曹操, 劉表보다는 나이가 적었음은 사실이다. 왕찬은 건안22년(AD. 217)에, 유포는 건안13년(AD. 208)에, 조조는 건안25년(AD. 220)에卒하였는데 중경은 建安末 즈음에卒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漢代의 저작물은 소수의 帛書를 제외하곤 대부분 竹簡이나 木簡이다. 중경의 『상한잡병론』은 죽간(대나무가 적은 지방은 목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荊湘지방은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죽간을 사용하였을 것이다)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후 『상한잡병론』은 점차 散亂되기 시작하였는데 章이나 條文 및 次序 등이 산란되었다. 그러나 결코 失傳되지는 않고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왔다.

산란된 이후부터 수많은 전본들이 유전되었는데, 예를 들면 『辨傷寒』, 唐本, 宋本, 高繼冲本, 『金

16) 『宋本傷寒論校注』 「張仲景原序」: 前揭書, p.2.

17) 「張仲景原序」: 上揭書, p.2.

18) 「宋刻傷寒論·序」: 上揭書, p.1.

19) 「張仲景原序」: 上揭書, p.2.

『玉函經』本, 敦煌殘卷本 등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대비하여 교감하면 각기 다른 이러한 전본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大同小異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본은 중경 『상한론』의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상한론』이 산란된지 얼마 후(정확히 말하자면 산란된지 2~5년 후) 魏·太醫令 王叔和가 편차를 정리하였다. 왕숙화가 중경의 遺著를 정리한 것에 관하여 송 이전에 기재된 것을 살펴보면 王叔和 『脈經·序』, 皇甫謐의 『甲乙經·序』, 高湛의 『養生論』, 北宋 高保衡, 孫奇, 林億이 교정한 『傷寒論·序』, 北宋 高保衡, 孫奇, 林億의 『校正金匱玉函經疏』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2. 『傷寒雜病論』의 變遷 狀況

『傷寒雜病論』은 『張仲景方』 혹은 『張仲景藥方』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 편찬 년대가 A. D. 206년 전후일 것이다.²⁰⁾ 이 책의 卷數는 自序에 의하면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散佚되어 수당 시대의 『張仲景方』의 15권의 傳本과 『傷寒卒病論』의 10권의 傳本이 있다.

1) 原始 版本

『상한론』 版本을 논할 때 『상한론』 祖本인 『傷寒雜病論』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傷寒雜病論』은 중경 스스로 명명한 것(『상한론·자서』)이며 그 이후에는 명칭이 다르다. 晉·皇甫謐은 『仲景選論』(『갑을경·서』)이라 하였고, 北魏의 高湛은 『張仲景方論』(『太平御覽』)이라 하였으며, 당·손사막은 『傷寒大論』(『천금약방』 卷九)이라 하였고, 王燾는 『張仲景傷寒論』(『外臺秘要』 卷一)이라 칭하였다. 『唐書·藝文志』에 이르러서는 『傷寒雜(卒)病論』으로 서명이 회복되었다. 북송 교정의서국에서 高繼冲이 진상한 『傷寒雜病論』 전본을 근거하여 상한 부분을 단행본으로 교정한 후에 『상한론』이라 하였고, 또한 교정한 다른 별본을 『金匱玉函要略』이라 명명하였다. 『상한잡병론』에서 잡병 부분의 내용을 정리 보존하여 책으로 된 것이 『金匱要略方論』이라 하며 후세에 『금계요략』이라 간칭한다. 이것이 『상한잡병론』 서명의 연혁이다.

『상한잡병론』의 성서 연대는 대략 AD. 206년 전후인데 이는 장중경 자서에서 “建安紀元以來, 猶未十稔”이라 한 것을 근거하여 추산하고 또한 “感往昔之淪喪”이라 한 말은 장중경이 『상한잡병론』을 저작할 때 친척들이 상한으로 죽은지 몇 년 지났음을 알 수 있다. 『후한서』 “建安四年三月大疫” 등의 기재는 중경의 자서와 서로 부합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권수는 저자의 자서에서 16권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부분적으로 이미 散佚되었기 때문에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갑을경·서』에서 “仲景論廣伊尹湯液爲數十卷”, 『太平御覽』에서 高湛을 인용하여 “王叔和編次『張仲景方論』三十六卷”이라 하였다. 이 두 사람

20) 趙開美 原刻: 『仲景全書』, 대성출판사, 1984. p.20.

“建安紀年(AD. 196)以來, 有未十稔, 其死亡者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로 추산할 수 있음

의 말을 믿는다면 晋代에는 『傷寒雜病論』이 수십 권이 넘는다. 그 후 왕도 『외대비요』에서 인용한 張仲景方에서 百合病症을 치료하는 조문인 百合諸方에서 제17권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甘草乾薑湯方 및 조문, 小青龍加石膏湯條文 등에서는 18권에서 나온다고 하여 중경의 自序보다 권수가 많다. 『新唐志』에는 『상한잡병론』 10권이라 하여 중경의 자서에 비해 적다. 결론적으로 『상한잡병론』은 복송 임역 등이 교정하기 이전에는 書名과 卷數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경의 저작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여 나누어지면 권수가 많아지고 합해지면 권수가 작아졌다. 복송 이전에는 인쇄술이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醫籍은 모두 抄寫에 의해 유전되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권수를 나누는 것이 각기 달랐다. 둘째, 고대에는 중경의 저작을 秘籍으로 여겨 손사막이 『천금요방』을 저작할 때에는 『상한잡병론』의 조문을 본 것이 1/10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江南諸師秘仲景要方不傳”²¹⁾이라 탄식하였다. 그 후 『천금요방』을 저작할 때에도 전모를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마다 발견된 『상한잡병론』의 자료가 달랐기 때문에 권수도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2) 『脈經』본의 『傷寒雜病論』

『상한잡병론』은 왕숙화에 의하여 정리 수정되었다. 황보밀의 『침구잡을경』에 의하면 “漢有華佗, 張仲景……近代太醫令王叔和撰次仲景選論甚精”²²⁾이라 하였는데, 이 서문은 魏나라 甘露元年(AD. 256)에 저작되었다. 서문 가운데는 왕숙화와 장중경을 함께 가리키며 나열하여 “近代”라고 하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王씨는 삼국시대(AD. 220년 이후)에 태의령의 직분에 역임하였다. 또한 北宋의 林億 등이 교정한 『脈經』에는 왕숙화를 西晉人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왕숙화가 이 책을 수정한 시기는 대략 A. D. 220~256년 사이이다.

현존하는 『脈經』본은 이미 복송의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것으로, 최초의 『맥경』과 본래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맥경·서』에 의하면 원서의 편차는 복송·임역 등이 교정한 시기에는 비교적 크게 변화되었다. 둘째 『맥경』본에는 『상한잡병론』의 원본에 나타난 대부분의 조문과 또한 원서의 처방이 수록되었다. 처방 부분에 있어 복송 교정본의 『맥경』본은 1068년에 처음 간행되었는데, 이미 1065년에서 1066년에 『상한론』과 『금궤요략』이 간행되었기에 복송 교정본의 『맥경』본에는 처방의 전부가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맥경』본의 원본 가운데는 증상에 따른 처방이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叔和가 撰次한 仲景의 遺書는 『脈經』 권7, 권8, 권9 三卷에 收載되어 있다. 『傷寒雜病論』原著의 옛 모습에 접근하려면 『脈經』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 三卷을 제외하고는 길이 없다.

仲景의 原著는 16권으로 되어 있다. 『脈經』은 仲景의 遺文을 기본으로 하여 『脈經』 7, 8, 9 三卷에 撰次하였다. 이것이 바로 撰次이다. 撰은 著錄이고, 次는 排次이다. 叔和가 遺文을 보고 著錄하고 排次하였음을 말한다.

21) 孫思邈 著·李景榮 외5人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發汗吐下後』,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25.

22) 『針灸甲乙經校釋』: 前揭書, p.14.

『脈經』본이 최초로 『傷寒雜病論』의 내용을 수록하였지만 『맥경』 상한 부분의 編次가 『상한잡병론』 상한 부분의 편차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 근거는 첫째, 『脈經』은 왕숙화가撰한 脈學 專著로 書名이나 自序, 그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는 高湛이 말한 “王叔和編次張仲景方論三十六卷”은 결코 아니다. 둘째, 『脈經』에는 各家의 저작을 撰集한 것으로 이를 모두 정리하고 다시 편집하였는데 편차는 다시 새롭게 歸類시켰다. 즉 『自序』에서 “各以類例相從”이라 하였다. 셋째, 『맥경』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을 收載할 때 原書의 편차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傷寒雜病論』의 편장을 수록한 것에도 간혹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권7 「病不可發汗第一」의 注에서 “右二條出醫律”이라 하였다. 따라서 『맥경』본에 수록된 『상한잡병론』의 내용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상한잡병론』 원래의 편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孫思邈의 『千金要方』, 『千金翼方』과 唐本 『傷寒論』

1) 『千金方』과 『傷寒論』

손사막(581~682)은 唐初 위대한 의학가로 그는 당시 벼슬을 중시하고 의약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하여 매우 불만을 품었다. 그는 『千金要方·序』에서 “末俗小人, 多行詭詐, 倚傍聖教, 而爲欺給, 遂令朝野士庶, 咸耻醫術之名, 多教子弟誦短文, 構小策, 以求出身之道, 醫治之術, 闕而弗論”²³⁾이라 하였고, 또한 “所以靑衿之歲, 高尚茲典, 白首之年, 未嘗釋卷”²⁴⁾하여 『備急千金要方』 30권을 저술하였다. 『천금요방』은 손사막이 일부 撰寫한 것을 제외하곤 절대 다수는 역대 醫藥資料의 類編으로 先秦에서 唐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학문헌의 귀중한 자료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손사막이 『천금요방』을 편사할 당시에는 온전하고 전면적인 『상한론』 전본을 볼 수가 없었고, 단지 분산된 단편적인 자료만 볼 수 있어 이를 『천금요방』 권9에 실었다. 『천금요방』 권9는 상한병을 전문한 권으로 모두 9절이 있다. 그리고 孫씨 만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상한론』 전본을 찾아 『천금요방』 권9, 권10에 편집해 넣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매우 중요한 『상한론』 전본이 방대한 『천금요방』에 가려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곤 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천금요방』의 『상한론』을 唐本 『傷寒論』이라 한다.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에 수록된 두 종류의 『상한잡병론』 전본이 一名 「千金本」과 「千金翼本」으로 간칭되고 있다. 수록된 문자를 살펴보면 두 전본에 상한론 부분을 완전하게 정리한 것은 아니다. 「천금본」에는 보존된 佚文이 비교적 적고 傷寒病과 雜病 두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금익본」은 원래 傷寒病 부분만 있고 雜病 부분이 없지만 수록된 傷寒病의 佚文이 비교적 온전하게 정리되었다. 두 전본 가운데 나타난 佚文과 현존하는 『상한론』과 『금궤요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23) 『備急千金要方校釋』 『備急千金要方序』: 前掲書, p.13.

24) 『備急千金要方序』: 上掲書, p.14.

【도표】 『천금』본과 『천금익』본의 『상한잡병론』

	『천금요방』의 일문	『천금익방』의 일문
상한 병 부분	<p>卷九：傷寒例第一 (『小品』에서 인용한 것과 『상한론』 傷寒例第六과 거의 같다)</p> <p>卷九：發汗湯第五, 宜吐第七, 宜下第八, 發汗吐下後第九 (4편 가운데 나타난 조문과 처방은 『상한론』과 거의 같다)</p> <p>卷十：勞復第二 (『상한론』과 거의 같다)</p>	<p>卷九：“太陽病用桂枝湯注第一”에서 “少陽病狀第九”까지 모두 9편</p> <p>卷十：“太陽病狀第一”에서 “陽明病已後勞復第七”까지 모두 7편</p> <p>(이상 16편의 조문과 처방은 『상한론』과 거의 같음)</p>
잡병 부분	<p>卷十：百合第三, 傷寒不發汗變成狐或第四, 傷寒發黃第五, 溫瘧第六 (4편 가운데 조문의 부분과 처방은 『금궤요략』과 거의 같음)</p> <p>卷二十六：食治 (모두 다섯 권이며 그 가운데 食禁 부분은 『금궤요략』과 거의 같음)</p>	없음

『천금요방』의 상한에서는 仲景, 華佗, 王叔和, 陳延之, 姚法衛, 陳廩秋 등 제가들의 학설을 수집하여 “博采群經, 以爲上下卷”²⁵⁾ 하였다. 『천금요방』의 체례는 「溫病」, 「百合」, 「狐惑」, 「發黃」, 「溫瘧」, 「溪毒」 등의 병증을 傷寒篇에 통괄하였다. 처방은 汗, 吐, 下 및 發汗吐下后 4종으로 나누고, 제가들의 방을 그 속에 배치하였다. 이는 이론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夫尋方之要, 以救俗爲貴, 是以養生之家常須合成熟藥, 而備倉促之急”²⁶⁾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는 발한법에서 膏, 散, 丸, 酒 등과 같은 응급에 필요한 製劑를 두었다. 孫씨는 五臟溫病證治를 창제함으로써 宋·龐安常이 靑筋牽, 赤脈攢, 黃肉隨, 白氣狸, 黑骨溫 등 5증을 개발하여 후대 溫病學說의 창립에 영향을 끼쳤다.

『천금요방』 권9는 상한병을 專論한 부분으로 모두 9절로 되어 있다. 제1절은 「傷寒例」로 이 절은 『傷寒論·傷寒例』의 문자를 많이 인용하였다. 송본 『상한론』에서는 『상한례』를 장중경이 만든 것이라 하였으나, 손사막이 그 당시에 본 『상한례』는 왕숙화가 만든 것으로 보았다. 이 절은 『상한론』을 고증하는데 세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손사막이 晉·陳延之의 『小品方』에서 두 개의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소품방』에서는 오히려 “經云：春氣溫和, 夏氣暑熱, 秋氣清涼, 冬氣冰冽”²⁷⁾ 등이라 하여, 여기에서 “經”은 陳延之가 의학경전에서 인용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떤 책에서 인용하였으며 『상한론』에서 인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소품방』이 散佚된지 오래되어 “經云”의 “經”字가 어떤 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夫陽盛陰虛, 汗之則死”에서 “仁愛鑑茲, 能不傷楚”까지²⁸⁾ 손사막은 “王叔和曰”²⁹⁾이라 하였다. 이는 『상한례』의 작자가 장중경인지 왕숙화인지를 唐代에 이미 다른 의견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25) 『備急千金要方校釋』卷9 「傷寒例」：前揭書, p.207.

26) 「傷寒例」：上揭書, pp.209~210.

27) 張璐：『千金方衍義』卷9 「傷寒方上·傷寒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00.

28) 上揭書：p.201.

29) 上揭書：p.201.

있다. 어떤 자료에서는 왕숙화의 것으로 보았는데 『천금요방』이 바로 그 例證이다.

셋째, 『千金要方·傷寒例第一』에 大段의 문자가 있다. 즉 “凡人有少苦, 似不如平常, 卽須早道, 若隱忍不治, 冀望自差”에서 “人得病能飲水, 欲愈也”³⁰⁾까지인데, 이 문단의 첫머리에 “論曰”³¹⁾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천금요방』, 『천금익방』을 연구할 때 마땅히 중시해야 한다. 오늘날 두 책에 있는 “論曰”의 사용 의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손사막이 自撰한 글의 앞에 “論曰”이라 표시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前人の 자료를 인용할 때에도 “論曰”이라 표시하였는데, 이 때 “論曰”의 의미는 “經曰”이나 “經云”에 상당한다. 앞서 문단의 첫머리에 “論曰”이라 한 것은 실제적으로 “經曰”의 작용에 상당한다. 따라서 앞의 글이 모두 송본 『상한론』 등에 나타난다.

『천금요방』 권9 제2절은 「辟溫」³²⁾으로 『상한론』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제3절은 「傷寒膏」³³⁾이고, 제4절은 「發汗散」³⁴⁾으로 이 두 절의 내용도 『상한론』과 전혀 상관이 없다. 『상한론』의 내용과 유관한 것은 제5, 제6, 제7, 제8, 제9절이다.

제5절 「發汗湯」³⁵⁾의 내용은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는 『상한론』과 유관한 것으로 각종 『상한론』 전본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조문이나 방제이다. 다른 일부는 『상한론』과 무관한 것으로 각종 『상한론』 전본에서는 볼 수 없는 조문이나 방제이다. 이 절에 수록된 『상한론』은 六經病의 조문에 속하는 것으로 52, 53, 54, 95, 13, 43, 44, 45, 15, 16, 17, 19, 12, 35, 38조의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이상 15조는 六經病에서 모두 太陽病篇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상술한 15조에서 52, 53, 54, 13, 43, 15, 12, 35조 등 9조만이 宋本과 『玉函』 「可發汗」篇에 있고, 그 나머지 6조는 宋本과 『玉函』의 「可發汗」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可”와 “不可”가 부단히 충실해지고 발전된 과정을 거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제6절은 「發汗丸」³⁶⁾으로 『상한론』과 유관한 조문은 “神丹丸治傷寒救澁惡寒發熱體疼者方”條이다. 이 조는 神丹丸方을 싣고 있는데 송본 『상한론·상한례』의 “神丹安可以誤發”句에서 神丹丸의 처방 내용이 빠진 것을 補闕할 수 있다.

제7절은 「宜吐」³⁷⁾로, 여기에 수록된 조문과 『脈經』, 『玉函』, 宋本, 唐本이 완전히 같다. 조문의 차서는 송본, 『맥경』과 같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간단한 구절 속에 제166조가 동시에 두 번 나타나는데 문자가 약간 다르다. 하나는 “堅”字를 避諱하였고, 하나는 避諱하지 않았다. 비교해 보면 “病如桂枝証, 頭不痛, 項不强, 而脈寸口浮, 胸中鞅滿, 氣上衝喉咽, 不得息者, 此以內有久痰, 宜吐之”가 있고, 6, 7행 건너 이 조가 다시 나타나는데 “病如桂枝証, 頭不痛, 項不强, 寸脈微浮, 胸中痞堅, 氣上撞喉咽, 不得息者, 此爲胸有寒也, 宜吐之”라 하였다. “堅”字를 피회하지 않은 조문은 隋代 이전의

30) 上掲書 : p.201.

31) 上掲書 : p.201.

32) 上掲書 : pp.203~205.

33) 上掲書 : pp.205~206.

34) 上掲書 : pp.206~207.

35) 上掲書 : pp.207~212.

36) 上掲書 : pp.212~213.

37) 上掲書 : pp.213~214.

것이고, “堅”자를 避諱한 조문은 隋代에 나온 것으로 후인이 이를 합하여 傳抄하였다. 손사막이 이를 고치지 않고 그냥 둔 것은 그가 『상한론』 자료를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8절은 「宜下」³⁸⁾로, “例曰 大法秋宜下”와 “凡下, 以湯勝丸散也, 中病便止, 不必盡劑也”를 제외하고 역시 六經病의 조문을 수록하였다. 차례에 따르면 126, 125, 106, 208, 209, 237, 236, 321, 322, 210, 218 등 모두 11조이다. 그 가운데 210, 218, 236 3조는 송본, 『육함』, 당본, 『맥경』 “可下”篇에는 없다.

제9절은 「發汗吐下後」³⁹⁾로 다음과 같은 조문을 수록하였다. 차례에 따르면 57, 397, 25, 40, 63, 77, 66, 82, 34, 67, 128, 131, 135, 137, 158, 157, 168, 169, 170, 222 모두 20조이다. 이 20조 가운데 송본 「發汗吐下後」篇에 나타나는 것은 67, 77, 137, 158, 168 5조만이 있으며, 각본의 「발한토하후」편에 수록된 조에서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로써 “可”와 “不可”의 각 편은 시대에 따라 의생들이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수시로 增刪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천금요방』 권9에 수록된 삼음삼양의 조문은 모두 49조이다. 이들 조문은 삼음삼양에 따른 조문 숫자의 1/8에 달하고, 송본의 398조와 비교하면 매우 심한 차이가 난다. 손사막은 이러한 조문이 『상한론』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으며, 단지 매우 적은 殘文이나마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원인은 “江南諸師秘仲景要方不傳”⁴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비교적 온전한 『상한론』이 존재하고 있으나 단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믿었다.

당본 『상한론』은 唐人이 저작한 것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온전한 『상한론』 傳本이다. 당본 『상한론』의 전반적인 재료를 관찰하면 대체로 宋本의 『상한론』이다. 이는 손사막이 만년에 이미 『傷寒論』 宋本을 발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장증경 『상한잡병론』 가운데 10권은 상한에 속하고 6권은 잡병을 논술한 것이라 하였다. 梁·阮孝緒의 『七錄』에 『상한론』이 10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한론』이 10권이라고 한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한론』이 원래 10권이었던다면 왜 당본 『상한론』은 단지 두 권으로만 되어 있는 것일까? 원래 손사막이 발견한 『상한론』은 두 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천금요방』의 권9, 권10과 짝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천금요방』 권9는 「傷寒上」, 권10은 「傷寒下」(실은 卷下는 雜病이다)라 하였고, 『천금요방』의 권9, 권10에서도 『상한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권9는 「傷寒上」, 권10은 「傷寒下」라 하여, 마치 『천금요방』에 날개를 단 듯한 형세를 하고 있다.

『천금요방』 傷寒에는 雜病은 없고 상한을 六經으로 분류하였다. 즉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 「太陽病用麻黃湯法第二」, 「太陽病用青龍湯法第三」, 「太陽病用柴胡湯法第四」, 「太陽病用承氣湯法第五」, 「太陽病用陷胸湯法第六」, 「太陽病雜療法第七」, 「陽明病狀第八」, 「少陽病狀第九」(이상 권9), 「太陰病狀第一」, 「少陰病狀第二」, 「厥陰病狀第三」, 「傷寒宜忌第四」, 「發汗吐下後病狀第五」, 「霍亂病狀第六」, 「陽明易病已後勞復第七」(이상 권10)로 되어 있다. 이 때에 그는 생각이 크게 변하여 여러 학설을

38) 上掲書 : pp.214~215.

39) 上掲書 : pp.215~219.

40) 『備急千金要方校釋』 「傷寒上·發汗吐下後第九」 : 前掲書, p.225.

널리 수집하는 것에서 중경만을 숭상하게 되어 “傷寒熱病，自古有之，明賢浚哲，多所防禦，至于仲景，特有神功”⁴¹⁾이라 하였다. 그리고 당시 太醫院 醫生이 상한을 치료한 것과 중경의 법으로 상한을 치료하는 것을 비교하여 “太醫院療傷寒 惟大青，知母等諸冷物投之……百無一效”⁴²⁾라 하고, 『상한론』의 법을 운용하여 상한을 치료하면 “行之以來 未有不驗”⁴³⁾이라 하였다. 따라서 『천금익방』에서는 제가들의 것을 폐기하고 단지 중경을 받들었으며 중경의 원문에서 상한만을 취하고 잡병을 취하지 않았다. 상한학에 대한 『천금익방』의 공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중경의 『상한론』을 수집하여 보존한 점이다. 이 두 편에는 『상한론』의 원문 392條와 처방 94首를 모두 수록하였다. 이는 孫씨가 만년에 얻은 『傷寒論』古傳本の 모든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 孫씨의 『천금익방』이 전파됨에 따라 『상한론』도 전파되었으며, 후세 『상한론』 판본을 연구하고 문자 고증에 원시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상한론』 원문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方證同條，比類相附”⁴⁴⁾의 방법을 창립하여 후세 ‘以方類證’파의 기초를 세웠으며 그 목적은 ‘須有檢討，倉促易知’함에 있다. 『천금방』과 비교하면 내용은 물론 형식에서도 모두 커다란 진보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천금익방』 六經病篇과 『傷寒宜忌』⁴⁵⁾篇의 조문에 몇몇 중복되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六經病篇의 桂枝湯，麻黃湯，大青龍湯 등의 조문이 「宜發汗」⁴⁶⁾篇에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상한론』 태양편에 있는 “咽喉乾燥”，“淋家”，“瘡家”，“衄家”，“亡血家” 등 不可發汗 조문은 『천금익방』에서는 太陽篇에 넣지 않고 「忌發汗」⁴⁷⁾篇에 편입시켰다.

이 이외에 학술적으로 孫씨는 “尋方大意，不過三種”⁴⁸⁾의 관점을 제시하여 “一則桂枝，二則麻黃，三則青龍，以之三方，凡療傷寒不出之”⁴⁹⁾라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천금익방』본의 상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상한만을 수록하였고 잡병은 수록하지 않았다. ② 六經을 주체로 分篇하였다. ③ 方証同條를 처음으로 만들고 상한 치료에 최초로 “麻，桂，青龍”三法을 제시하였으며 후세 ‘三綱鼎立’학설에 기초를 세웠다. ④ 方，証，治三者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열었다.

손사막이 『상한론』(잡병을 포함)을 다시 수집, 정리, 편차하여 면목을 일신시킴으로써 『상한론』의 가치가 장려되고 지위도 높아지게 되었다. 唐代 중기에 이르러 醫官들이 모두 『상한론』을 학습하게 되었고 醫官으로 入仕하는 考試規程에 『상한론』이 필수 과정의 하나가 되었다(『천금요방·後序』).

2) 唐本 『傷寒論』이 發見된 過程

41) 『千金翼方校釋』卷9 「傷寒上」：前揭書，p.127.

42) 『千金翼方校釋』卷9 「傷寒上」：前揭書，p.127.

43) 上揭書：p.127.

44) 上揭書：p.127.

45) 上揭書：pp.157~162.

46) 上揭書：p.158.

47) 上揭書：pp.157~158.

48) 上揭書：p.127.

49) 上揭書：p.127.

손사막이 만년에 입수한 당본 『상한론』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손사막이 『천금요방』을 저작할 때 장중경의 『상한론』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舊唐書·孫思邈傳』에 의하면 魏徵이 齊, 梁, 周, 陳, 隋 5代史를 편찬할 때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누차 손사막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상황을 물었을 때 “思邈口以傳授, 有如目見”이라 하였다. 『隋書』는 傳記부분과 『經籍志』가 동시에 성서된 것이 아니다. 五代史는 貞觀3년(627)에 編修하기 시작하여 10년(636)에 완성되었는데 모두 傳記부분으로 ‘志’(『禮儀志』, 『音樂志』, 『律曆志』, 『天文志』, 『五行志』, 『食貨志』, 『刑法志』, 『百官志』, 『地理志』, 『經籍志』 등 10志)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志’는 貞觀15년(641)에 편수하기 시작하여 高宗顯慶元年(656)에 완성되었다.

『五代史志』를 편찬할 때 앞서 魏徵이 “江南諸師秘仲景要方不傳”⁵⁰⁾이라 轉述한 ‘不傳’을 ‘不存’으로 이해하였고, 당시 官府의 藏書에서도 『상한론』이 없었기 때문에 『隋書·經籍志』의 小注에 『傷寒論』은 이미 ‘亡’하였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⁵¹⁾ 그러나 『천금요방』에 『상한론』이 잘 보존되어 있어 ‘亡’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손사막이 『천금요방』을 편사할 때 『상한론』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천금요방』을 편사할 때 비로소 『상한론』 전문을 볼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어렵지만 관련된 사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隋代에 원래 매우 풍부한 장서가 있었으나(隋代에 官修한 대형의 醫學類書인 『四海類聚方』 2600권이 있었음⁵²⁾ 수·양제시기 부터 시작한 30여년 동안의 전쟁으로 장서들이 훼손되거나 소멸되었다. 당대에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규모로 도서를 정리하여 編目을 만들었으나 ‘校定’과 ‘刊正’에 국한되었다. 결국 校勘작업을 벗어나지 못하여 정리의 성과가 뚜렷하지 못하였다. 이 때가 손사막이 『천금요방』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시기로 宮室의 藏書가 결핍되어 있었고, 장서가 있더라도 편목이 없어 이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장중경의 『상한론』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唐代 초년에 前代의 도서를 수집하여 수 척의 배에 싣고 黃河를 거슬러 올라오다가 底柱를 지날 무렵 거의 전부가 침몰하였다는 기록이 『隋書·經籍志』에 나타난다.⁵³⁾ 『상한론』이 그 속에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과적으로 매우 많은 도서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손사막이 『상한론』을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상이 손사막이 唐初에 『상한론』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

손사막이 『상한론』을 발견하게 된 동기는 정세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를 중시한 시대적인 정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唐·高宗·乾封 元年에 저명한 학자들에게 古書를 整理, 繕寫할 것을 명하여 經, 史, 子, 集에 미치지 않았다. 이는 문화를 보존하고 고서를 수집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이 시기에 바로 손사막이 『천금요방』을 撰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舊唐

50) 『備急千金要方校釋』 「傷寒上·發汗吐下後第九」: 前掲書, p.225.

51)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前掲書, pp95~96.

52) 上掲書: p.63.

53) 長孫無忌: 『隋書經籍志』卷1, 中華書局, 1985, p.5.

“大唐武德五年, 克平偽鄭, 盡收其圖書及古籍焉. 命司農少卿宋遵貴載之以船, 溯河西上, 將致京師. 行經底柱, 多被漂沒. 其所存者, 十不一二. 其目錄亦爲其所漸濡. 時有所缺.”

書·經籍志·序』에 의하면 唐·太宗과 高宗 두 皇家의 書庫에 대량의 고서를 수장하고 있었는데, 兩朝를 통하여 부단히 刊正하고 整理하였을 뿐 아니라 玄宗에 이르도록 모두 정리하지 못하였다. 즉 『천금요방』이 成書된 이후의 시기부터 唐朝는 前代에서 전해온 수많은 고서를 부단히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이 당시에 『상한론』이 나타나 손사막이 이를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小序를 지어 “特有神功，尋思旨趣，莫測其致”⁵⁴⁾라 하여, 이것을 『천금익방』 권9, 10에 전부 收載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唐本 『傷寒論』으로 추정된다.

4. 康治本과 康平本 『傷寒論』

1) 康治本·康平本の 成書 背景

馬繼興은 『中醫文獻學』에서 “康治本『상한론』은 19세기 중엽 일본에서 발견된 唐人이 手抄한 『傷寒論』 卷子本이다……이 卷子는 1849년(일본 嘉永2년) 일본인 戶上重較가 발견하여 影抄함과 동시에 宋本 『상한론』으로 校勘하고 眉注 및 卷首의 凡例, 方의 目次를 附加시켰다”⁵⁵⁾고 하였다.

『康平傷寒論』도 『상한론』의 古傳本이다. 일본 後冷泉天皇 康平3년에 侍醫 丹波雅忠(1021~1088)이 家傳의 本을 抄寫하였기 때문에 康平本이라 한다. 康平3년은 1060(북송 仁宗 嘉祐 6년)에 해당된다. 丹波雅忠이 조사한 시기는 林億, 孫奇가 교정한 송본 『상한론』(治平2년 즉 1065년)의 시기보다 6년이나 앞선다. 馬씨는 “여기에는 송대의 왕을 避諱(예를 들면 玄武湯은 『천금익방』과 같다. 宋本에서는 송 시조인 趙玄朗을 避諱하여 眞武湯으로 고쳤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송 이전의 原始 傳本으로 상당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⁵⁶⁾고 하였다.

강치본, 강평본 『상한론』은 唐代에 일본으로 전해진 『상한론』이다. ‘康治’는 일본 近衛天皇의 紀年이다. 康治2년(1143)에 了純이라는 스님이 초록하였기 때문에 ‘강치본’이라 한다. ‘강치본’은 殘本으로 단지 50首의 方이 있다. 이상 두 전본은 송본 『상한론』보다 시대가 앞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상한론』 학술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두 전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康治本の 特徵

『상한론』은 『구당서·경적지』에는 저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王叔和張仲景方十五卷”만이 실려 있으며, 『신당서·예문지』에는 이것 외에 “傷寒雜病論十卷”이 실려 있어 唐代에 『상한론』의 전본이 비교적 많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新舊唐書에 저록된 것 이외에 당대 『상한론』 전본에는 『천금요방』 권9 殘卷本이 있고, 『천금익방』 권9, 권10의 全帙本이 있으며, 『외대비요』에서 수많은 『상한론』의 조문을 인용하여 王燾도 『상한론』 傳抄本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殘本이긴 하지만 康治本

54) 『千金翼方校釋』卷9 『傷寒上』：前掲書, p.127.

55) 馬繼興：『中醫文獻學』 『傷寒雜病論의 기타 傳本과 輯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132~135.

56) 上掲書：p.134.

도 일찍이 唐代에서 유전된 전초본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책에 대한 각기 다른 傳抄本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를 매우 중시하였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六經'과 인체의 병리를 연계시킨 이후부터 질병이 경맥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하는 단계와 순서인가, 아니면 단순히 질병의 날짜를 표시한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맥경』 권7에 『상한론』의 대부분의 조문이 수재되어 있으나 『맥경』에는 '可'와 '不可'의 원칙으로 배치되어 있다. 『천금요방』 권9에도 '가'와 '불가'의 원칙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두 전본에는 '육경'이 경맥을 대표하거나 질병이 경맥에 따라 전변하는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高繼沖本의 『상한론』에는 '육경'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경맥과 질병이 경맥에 따라 전변함을 나타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경이 질병의 날짜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이 전본에서 '육경'이 이러한 두 가지 방면의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손사막이 대체로 온전한 『상한론』 전본을 발견하고 이를 『천금요방』에 편입시키고 나서야 '經脈'과 '傳經' 및 '六經病概念' 대하여 인식과 이해가 있게 되었다.

'강치본' 『상한론』이 잔본이긴 하지만 그 조문이 육경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육경'은 질병의 날짜를 나타내지는 않고 질병이 淺部에서 深部로 발전함을 나타내었다. 강치본 '육경'의 의의는 『唐本』, 『宋本』, 『康平本』의 의의와 같다.

3) 康平本의 特徵

(1) 構成

강평본의 구성은 ①傷寒例,⁵⁷⁾ ②辨太陽病 瘧溫喝,⁵⁸⁾ ③辨太陽病,⁵⁹⁾ ④辨陽明病,⁶⁰⁾ ⑤辨少陽病,⁶¹⁾ ⑥辨太陰病,⁶²⁾ ⑦辨少陰病,⁶³⁾ ⑧辨厥陰病,⁶⁴⁾ ⑨辨厥陰病 霍亂,⁶⁵⁾ ⑩辨陰陽易差後勞復⁶⁶⁾으로 되어있다. 송본 권1에 「辨脈法」, 「平脈法」이 있으나 강평본에는 이 두 편은 없다. 송본 권7 「辨陰陽易差後勞復」 이후부터 권10까지 '可'와 '不可'로 되어 있으나, 강평본에는 '가'와 '불가' 諸篇은 없다.

강평본에서는 '太陽病'의 '太'자가 모두 '大'자로 되어 있다.⁶⁷⁾ '태'자는 고대 서법에서 '대'로 씌어졌으며, 후대로 내려오며 따라 '대'자 아래에 점을 가하여 '태'로 변하였다. '태'와 '대'를 시간적인 선후에 따라 말하자면 '대'가 앞서고 '태'가 뒤에 나타난다. 강평본에서 '태양병'을 '대양병'으로 쓴 것은

57) 張仲景 著 黃一九 編輯：『古本康平傷寒論』,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pp.4~15.

58) 上掲書：pp.16~18.

59) 上掲書：pp.18~75.

60) 上掲書：pp.76~92.

61) 上掲書：pp.93~94.

62) 上掲書：pp.95~96.

63) 上掲書：pp.97~107.

64) 上掲書：pp.108~118.

65) 上掲書：pp.118~121.

66) 上掲書：pp.122~124.

67) 『古本康平本傷寒論』：前掲書, p.16, p.18, p.29, p.57.

로 보아 이 책이 옛 것을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평본에서 '眞武湯'을 일률적으로 '玄武湯⁶⁸⁾으로 써어 있어 송대의 避諱가 아니며, 또한 후인들이 개정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강평본에는 '堅'자가 모두 '韮'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隋文帝인 楊堅을 피휘한 것으로 이 본이 일찍이 隋代에 傳抄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또한 이 본이 隋 이전의 전본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강평본에는 '四逆湯'이 '回逆湯⁶⁹⁾으로 써어져 있다. '사역탕'은 감초, 건강, 부자 세 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回逆(救逆)에 사용한다. 『상한론』에서 대부분의 方劑名은 名實이 相符하게 명명하였으나 '四逆'은 실제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역탕'이 보다 더 古方에서 명명한 뜻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序文」에 對한 小考

송본 『상한론·서』는 "論曰：余每覽越人入虢之診"에서 시작하여 "余宿尙方術，請事斯語"로 끝난다⁷⁰⁾. 그러나 『千金要方』 권1 「治病略例」 제3에서 손사막이 "夫天布五行，以運萬類，人稟五常，以有五臟"에서 "夫欲視死別生，固亦難矣"⁷¹⁾까지를 인용함에 있어, 이 句文이 장중경의 『상한론·서』에서 나왔는지에 관하여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孫씨는 『비급천금요방·서』에서 『상한론·서』를 인용할 때 명확히 "張仲景曰"⁷²⁾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천금익방』 권29 「禁經」에서 말하길 方藥을 찾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余早慕方技，長崇醫道，偶逢一法，豈惜千金？遂使名方異術，莫能隱秘"⁷³⁾라 하였다. 그리고 "名方異術" 가운데 장중경을 가장 추앙하여 "至于仲景，特有神功，尋思旨趣，莫測其致"⁷⁴⁾라 하였다. 따라서 장중경의 글을 인용할 때 반드시 정중하게 "장중경왈", "중경왈"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體例가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의 전반에 걸쳐 관통하고 있다. 만일 "夫天布五行，以運萬類，人稟五常，以有五臟"에서 "夫欲視死別生，固亦難矣"까지의 글이 『상한론·서』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 글 앞에 "張仲景曰"이라 표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송본 『상한론』 서문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강평본은 원래 小注，旁注가 있고 후인이 增入한 문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원문 아래 두 줄로 배열하였다. 일본 大塚敬節은 "이 책의 새김은 오로지 옛 모양을 갖추고 있어 行數，字數，旁書，嵌注 등을 改竄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평본의 격식은 예로부터 이어 내려온 것으로 고친 곳이 없다. 강평본 『상한론·서』에는 "若能尋余所集，思過半矣"句 아래의 긴 문단인 "夫天布五行，以運萬類"를 두 줄로 排印하여 이 글이 원래 중경이 쓴 것이 아니고 후인이 발취시킨 것으로 나타내었다.⁷⁵⁾ 강

68) 上揭書：p.104.

69) 上揭書：p.107.

70) 『宋本傷寒論校注』：前揭書，pp.2~3.

71) 『備急千金要方校釋』：前揭書，pp.3~4.

72) 上揭書：p.14.

73) 『千金翼方校釋』卷29 「禁經」：前揭書，p.440.

74) 『傷寒上』：上揭書，p.127.

75) 『古本康平本傷寒論』：前揭書，pp.2~3.

평본의 이러한 抄寫와 排印의 옛 격식이 증명하고 있고, 또한 앞서 『천금요방』에서도 증명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즉 “若能尋余所集，思過半矣” 아래 문단은 중경의 『상한론·서』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후인이 『상한론·서』에 대해 발회시킨 것을 대략 북송 林億과 孫奇 등이 『상한론』을 교정할 때 이 문단이 正文에 混入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宋本과 成无己本の 『傷寒論·序』에는 “感往昔之淪喪，傷橫天之莫救，乃勤求古訓，博采衆方，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陰陽大論，胎臚藥錄并平脈辨證，爲『傷寒雜病論』，合十六卷”으로 되어 있으나 76) 강평본에서는 “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陰陽大論，胎臚藥錄并平脈辨證” 23자가 “博采衆方” 句 아래 小字 注釋으로 씌어져 있다. 77) 아래와 위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23자를 주석으로 보아도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이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古雅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23자를 원문으로 보면 약간 산만한 감은 있지만 내용은 충실해진다. 이 23자에 대해서는 문헌적인 자료의 미비로 시비를 가리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3) 「傷寒例」에 對한 小考

元明 이래로 辨僞의 학문이 크게 발전하였고, 청대에 이르러 훈고학이 발전됨에 따라 수많은 학자, 의가들이 이러한 학풍의 영향으로 「傷寒例」, 「辨脈」, 「平脈」이 장중경의 『상한잡병론』 원서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왕숙화가 增入시킨 것인가, 심지어 어떤 문단은 왕숙화 이후의 사람이 증입시킨 것이라는 등 오랫동안 考證과 논쟁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평본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를 확연히 밝힐 수 있다.

「상한례」에서 “今搜采仲景舊論，錄其証候，診脈，聲色，對病眞方有神驗者，擬妨世急也” 78)라 하여 이 편은 숙화가 중경의 舊論을 수집하여 만들었음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중경의 논도 있고 叔和의 說도 있다. 송본에는 이미 仲景의 論과 숙화의 설이 섞여 하나로 되어 구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평본에는 숙화가 발회시킨 것을 본문 아래 두 줄로 排印하여 분명히 구분하였다. 숙화의 주석은 正文에 小字 細注로 씌어져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고대의 이러한 抄寫 격식은 「상한례」에서 어느 것이 중경의 말이고 어느 것이 숙화의 말인지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다.

『천금요방』, 『외대비요』를 대조시켜 「상한례」를 연구하면 왕숙화가 撰한 말을 찾을 수 있다. 王燾는 『외대비요』 권1에서 “傷寒之病，逐日淺深，以施方治”에서 “無不效也” 79)까지 62字, “又土地溫涼，高下不同”에서 “臨病之工，宜須兩審也” 80)까지 51자는 王叔和撰이라 하였다. 「傷寒例」에 관한 문장인 “夫表和裏病，汗之則死，下之則愈”에서 “至今冤魂塞于冥路，死尸盈于曠野，仁者覽此，豈不痛歟”까지 165자는 『천금요방』 81)과 『외대비요』 82)에서 모두 왕숙화찬이라 하였다.

76) 成无己：『注解傷寒論』「傷寒雜病論序」，《中國醫學名著珍品全書》，遼寧科學技術出版社，1995. p.353.

77) 『古本康平本傷寒論』：前掲書，p.2

78) 『注解傷寒論』卷2「傷寒例」：前掲書，p.372.

79) 王燾：『外臺秘要』卷1「論傷寒八家合一十六首」，成輔社，1975. p.47.

80) 卷1「論傷寒八家合一十六首」：上掲書，p.47.

또한 『상한론』에 관하여 “凡兩感病俱作，治有先後”⁸³⁾에서 “安危之病，豈可詭哉”⁸⁴⁾의 79자도 『의대비요』에서 왕숙화찬이라 하였다. 『천금요방』 『상한론』에서는 “『陰陽大論』：春氣溫和，夏氣暑熱”에서 “是以一歲之中，長幼之病多相似者，此則時節之氣也”⁸⁵⁾까지 214자는 『천금요방』에서는 이 글이 “經書”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의대비요』에서는 이 글이 『陰陽大論』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⁸⁶⁾

따라서 『천금요방』에서 가리킨 ‘經’은 필시 『陰陽大論』일 것이다. 강평본 小注에서도 이 말이 『陰陽大論』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이 214자는 중경이 찬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속화가 만든 것도 아니며 『상한잡병론』에서 인용한 것을 속화가 수집하여 『상한론』 속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篇名을 『상한론』이라고 하였지만 脈象, 穴位 등을 언급한 부분이 많고 『상한론』의 내용이 나 體例와는 전혀 서로 연계되지 않아 그 내용이 질서가 없고 매우 혼잡스럽다.

강평본에서는 “夫欲候知四時正氣，爲病及時行疫氣之法，皆當按斗曆占之”에서 “秋傷於濕，冬必咳嗽，冬傷於寒，春必溫病。此必然之道，不可不明審之”⁸⁷⁾까지 565자는 모두 본문 아래 두 줄로 쪼여져 있다. “尺寸俱浮者，太陽受病也”에서 “以此冬傷於寒，發爲溫病，脈之變証，方治如說”⁸⁸⁾까지 546자도 두 줄의 小注로 되어 있다. “又身之三百六十五 其三十穴灸之有害”⁸⁹⁾에서 끝까지도 역시 두 줄의 小注로 되어 있다. 본문 아래 두 줄로 抄寫한 문자는 모두 왕숙화가 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평본에는 ‘可’와 ‘不可’의 諸篇이 없다. ‘가’와 ‘불가’는 왕숙화가 당시 사람들이 병을 진단한 습관에 근거하여 중경이 만든 조문을 다시 새롭게 排次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한론』 六經病의 조문과 ‘가’와 ‘불가’는 원래 각기 성서된 것인데 후대에 전초하는 과정에서 이를 육경병 뒤편에 附記시켰고 송본에 이르러 이를 정형화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강평본 『辨陰陽易差後勞復病』 뒤편에는 ‘가’와 ‘불가’가 없다. 이러한 구성은 조기 『상한론』 전본의 원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5. 宋本 『傷寒論』과 高繼衝本 『傷寒論』

1) 宋本の 沿革

張仲景의 『상한론』은 東漢에서 晉唐을 거치면서 여러 원인으로 原著가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손사막이 『천금요방』을 저작할 때 “江南諸師秘，仲景要方不傳”⁹⁰⁾이라 하여 안타

81) 『備急千金要方校釋』 卷9 「傷寒例」：前揭書，p.208.

82) 『外臺秘要』 卷1 「論傷寒八家合一十六首」：前揭書，p.47.

83) 卷1 「論傷寒八家合一十六首」：上揭書，p.48.

84) 卷1 「論傷寒八家合一十六首」：上揭書，p.48.

85) 『備急千金要方校釋』 卷9 「傷寒例」：前揭書，p.207.

86) 『外臺秘要』 卷1 「論傷寒八家合一十六首」：前揭書，p.47.

87) 『古本康平傷寒論』：前揭書，pp.5~6.

88) 上揭書：pp.8~10.

89) 上揭書：pp.14~15.

90) 『備急千金要方校釋』 「傷寒上：發汗吐下後第九」：前揭書，p.225.

까워하였고, 만년에 그가 저작한 『천금익방』에 까지 그 전모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왕도가 『외대비요』를 저작할 때에도 단지 『상한론』의 일부 내용만을 수록하였는데 소위 “傷寒八家”⁹¹⁾라 하여 당시 유전하던 別本으로 그 편린만 수록하였다. 史志에 기재된 상한 저작으로는 晉·王珉의 『傷寒身驗方』, 南宋·徐方伯의 『辨傷寒』, 隋代 佚名氏의 『傷寒總要』와 『正理傷寒論』, 唐·張杲의 『傷寒論』과 李涉의 『傷寒方論』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⁹²⁾ 그러나 이러한 저작들은 이미 宋代 이전에 佚失되었고 민간에 유전된 것이 있더라도 전초가 잘못된 본이었다. 상한학의 자료들은 이미 단절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宋朝의 건립과 더불어 시대적인 상황이 점차 바뀌게 되었다. 송 정부는 醫籍의 수집을 중시하여 “乾德元年(936년)平江南 盡收其圖書以實三館 四年(966년)下詔募亡書”(『容齋五筆·卷七』)하였다. 仁宗 이후부터 徽宗에 이르기까지는 『崇文總目』을 바탕으로 『秘書總目』을 만들었다.⁹³⁾ 宣和 초기에 御前書籍所를 설치하여 다시 전국의 의서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서적 수집 활동을 통하여 민간에 유전된 醫書를 포함한 珍籍, 秘本들이 조정에 진상되었다. 『상한론』 秘傳본도 이 때에 나타나게 되었다. 林億이 교정한 『상한론·서』에 의하면 開寶元年(968년) 荊州 節度使 高繼衝이 『傷寒論』을 編錄하여 조정에 바쳤다. 이 판본이 나중에 『傷寒論』을 교정할 때 藍本이 되었다.

『상한론』은 北宋 治平2년(1065)에 林億과 孫奇 등이 奉詔하여 교정하였다. 이 본은 朝廷에서 欽命하여 校定하였기 때문에 『傷寒論』 定本이 되었다. 이 책이 나오기 부터 여러 『傷寒論』 傳本을 결속시키게 되었다. 宋本과 唐本이 모두 齊梁 古本の 『辨傷寒』 10권에서 나왔지만 宋本은 唐本을 底本으로 삼지 않고 『辨傷寒』 傳抄本을 底本으로 삼았다.

北宋의 林億 등은 隋人이 抄寫한 『傷寒論』을 底本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책 10권이 齊梁 古本 『辨傷寒』 10권본(梁·阮孝緒 『七錄』에 실린 『傷寒論』을 말한다)을 직접 승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본은 『金匱玉函經』 8권본, 唐本 2권본, 淳化 殘卷本에 비하여 온전하였다. 이 본은 隋 文帝 楊堅, 隋 煬帝 楊廣이 대규모로 抄書한 시대에 초록한 것으로 다른 본에 비하여 정교하다. 그러나 淳化本은 殘卷이기 때문에 底本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손사막의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에 있는 傷寒은 殘闕이 심하고 浩繁한 卷帙 가운데 가려져 있었고, 太陽病篇은 다시 孫씨의 개편을 거친 것으로 底本으로 삼기에는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에 隋代의 傳抄本을 底本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금계육합경』, 『唐本』, 『脈經』 등 여러 傳本과 대비하면 宋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다시 새롭게 分卷하였다.
- ② 『傷寒例』에 ‘四時八節二十四氣七十二候決病法’을 증보시켰다. 이 節의 문자는 『상한론』 古傳本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다.
- ③ 每卷 앞에 모두 ‘子目’이 있다. ‘子目’의 작용은 每卷의 앞에 이 卷의 ‘証’과 ‘法’을 일일이 標明하

91) 『外臺秘要』卷1 「諸論傷寒八家合…十六首」: 前掲書, pp.47~54.

『外臺秘要』에서는 王叔和, 華佗, 陳廩丘, 范汪, 九卷, 小品, 千金, 經心錄을 傷寒八家라 하였다.

92) 『傷寒學術史』: 前掲書, p.53.

93)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前掲書, p.381.

였다. 方劑에 條文이 있으면 '法'이라 하고 方劑에 條文이 없으면 '証'이라 하였다. 子目的 編寫 시대는 隋代에 나온 것이 있고 宋代에 나온 것도 있어 상세한 고찰이 기대된다.

林億 등은 治平2년에 『상한론』을 교정하였고 治平3년에 『상한론』과 '同體而別名'인 『금계옥함경』을 교정하였다. 이때부터 『상한론』 傳本이 비로소 하나로 정해지게 되었다. 『금계옥함경』이 '條列于前, 方滙于後'하여 醫家들이 찾아 사용하기 불편하였기 때문에 『상한론』만이 의가들에게 유행하였고 『금계옥함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金·成无己의 『注解傷寒論』에서 근거로 삼은 底本은 宋本 — 즉 北宋 治平2年本이다. 그러나 增刪한 곳도 있다. 오늘날에는 明·趙開美的 『仲景全書』에 수록된 『注解傷寒論』을 말하는데 宋本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南政·北政三陰六圖, 三陰三陽上下加臨補瀉圖, 五運六氣主病加臨轉移圖 및 運氣圖解 등을 增加시켰다.
- ② 方劑의 藥味 아래에 藥性的 寒溫甘平苦 등의 글자를 증가시켰다.
- ③ 宋本의 '可與不可'에서 중복된 조문을 없애고, 六經病(즉 중복되지 않은 것)의 條文을 실었다.
- ④ 宋本 권10에 있는 조문을 없앴다. 成씨는 "此第十卷第二十二篇凡48証 前三陰三陽篇中悉具載之"라 하여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없앴다. 그러나 25方的 造成에 대해서는 상세히 注釋하여 설명하였다.
- ⑤ 宋本의 子目を 刪去하였다.
- ⑥ 宋本 林億 등의 校語를 刪去하였다.

2) 唐本 『傷寒論』과 宋本 『傷寒論』의 比較

唐本 『傷寒論』과 宋本 『傷寒論』과는 — 즉 『辨傷寒』과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 ① 「辨脈」, 「平脈」, 「傷寒例」가 없다.
- ② 太陽病篇을 分散시켜 重編하였다.
- ③ 唐本 『傷寒論』 六經病은 宋本의 六經病에 비하여 3條 1方이 많아 宋本을 補闕할 수 있다. 즉 太陽中風, 發熱而惡寒(桂枝湯第一), 太陽病, 三四日不吐下, 見衄乃汗之(同上), 傷寒一日, 太陽脈弱, 至四日太陰脈大(麻黃湯法第二), 柴胡加大黃芒硝桑螵蛸湯方(柴胡湯法第四).
- ④ 唐本 『傷寒論』의 宜忌篇(즉 "可與不可"篇)은 宋本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몇 條가 많아 宋本을 補闕할 수 있다.
 - ㉠ 下利 脈遲緊爲痛, 未欲止, 宜溫之(「宜溫」).
 - ㉡ 下利 脈浮大者此爲虛, 以強下之故也. 宜溫之, 與水必噦(同上).
 - ㉢ 下利欲食者, 宜就溫之(同上).
 - ㉣ 「忌刺」全節.
 - ㉤ 婦人傷寒, 懷身腹滿, 不得小便, 加從腰以下重, 如有水氣狀, 懷身七月, 太陰當養不養, 此心氣

實, 宜刺, 寫勞宮及關元(「宜刺」).

㉔ 傷寒, 喉痹, 刺手少陰穴, 在腕當小指後, 動脈是也. 針入三分, 補之(同上).

㉕ 嘔而吐, 膈上者, 必思煮餅, 急思水者, 與五苓散飲之, 水亦得也(「宜水」).

㉖ 發汗後身熱, 又重發其汗, 胃中虛冷, 必反吐也(「發汗吐下後病狀」).

㉗ 大下後, 口燥者, 胃虛故也(同上).

⑤ 唐本 『傷寒論』은 宋本에 비하여 14조가 적은데 즉 6, 11, 30, 47, 73, 78, 81, 90, 110, 140, 162, 167, 174조가 없다. 고증에 따르면 이 14조 가운데 후인이 增入한 것이 있는데 제11조, 178조와 같은 것은 후인이 增入시킨 것이다.

上述한 것으로 唐本 『傷寒論』은 宋本과 齊梁本, 晉宋本, 魏本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고 宋本の 전 내용을 거의 포괄하였으며 宋本에서 빠진 것을 보충할 수 있고, 宋本の 「辨脈」, 「平脈」, 「傷寒例」가 원래 『傷寒論』에 있었던 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高繼衝本 『傷寒論』

(1) 高本の 流傳 過程

傷寒學術發展史에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상한론』 전본인 즉 高繼衝本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대에 『상한론』을 교정할 때 어떠한 전본을 『상한론』 底本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검토가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이 검토한 전본으로는 六朝隋唐시대부터 전해온 장중경 『상한론』10권본, 『金匱玉函經』8권본, 당본 『상한론』(즉 손사막의 『천금익방』본), 南宋 開寶년간에 荊南節度使 高繼衝이 進上한 本 등이 있었다. 신중한 검토 끝에 『상한론』10권본을 저본으로 삼아 교정하고, 『금계옥함경』은 단독으로 교정하였으며, 당본 『상한론』은 『상한론』을 교정하는데 주된 교본으로 채용하였고, 고계충의 진상본은 “開寶中, 節度使高繼衝, 曾編錄進上, 其文理舛錯, 未嘗考正. 歷代雖藏之書府, 亦闕于仇校, 是使治病之流, 舉天下無或知者.”⁹⁴⁾라 評하였다. 임역 등이 高씨가 編錄하여 진상한 판본은 “歷代”로 皇家의 도서관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외부인이 잘 접근하지 못하였지만 “文理舛錯”하고 즉 錯訛가 많고, 또한 역대로 이에 대한 考證이나 校勘도 없었기 때문에 『상한론』을 교정하는데 저본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高씨本을 저본으로 삼지 않았다면 짧은 서문 속에서 왜 특별히 언급하였을까? 원래 이 본에 대한 유래와 배경이 범상하지 않기에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지 않은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고계충은 唐末五代十國 중에서 荊南國(옛 楚國 지방)의 마지막 군주였다. 고계충의 曾祖인 高季興은 梁·開平元年(907)에 荊南 절도사가 되었고, 祖父 從海는 “以經史自娛”하였으며, 부친 保融은 성격이 怯弱하고 무능하였는데 대대로 荊南지역을 다스렸다.⁹⁵⁾ 따라서 고계충이 진상한 『상한본』은

94) 『宋本傷寒論』 「宋刻本傷寒論·序」: 前掲書, p.1.

95) 司馬光: 『資治通鑑』 권276 권279 권288, 內蒙古人民出版社, 2000. pp.4054~4057, p.4107, p.4239에서 발췌.

형남국에 원래 있었던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통하여 약탈한 것일 수도 있다. 高從海가 經史를 증시하였기 때문에 『상한론』을 아꼈을지도 모른다.

高保融이 960년에 죽자 그의 동생 高保勳이 荊南을 장악하였고, 保勳이 죽자 뒤를 이어 고계충이 정식으로 荊南節度使로 봉해졌다.⁹⁶⁾ 이 시기는 北宋 趙匡胤 乾德元年으로 고계충의 나이 18세 때였다. 행정적으로는 북송에서 節度判官을 파견하였고, 군사적으로도 군대를 파견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고계충에게 어려운 정치적인 역정이 시작되었다. 송조가 건립되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각지에서 할거하던 국가를 멸망시켰는데 형남지방도 예외일 수 없었다. 따라서 고계충이 962년 11월에 형남국을 관리한지 3개월 후 963년 2월에 멸망하였다. 그 후 조광윤이 다시 고계충을 형남절도사로 임명하였지만 樞密承旨 王仁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고계충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부단히 물품을 진상하였고, 동시에 조광윤의 동생 趙昺이 方書(『太平聖惠方』)를 편찬하기 위해 醫書와 藥方을 널리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에 고계충이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었던 『상한론』을 헌납하였다. 즉 임역이 『상한론·서』에서 “開寶中，節度使高繼衝曾編錄進上”이라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⁹⁷⁾

조광윤이 죽고 趙昺이 즉위하였는데 그가 宋太宗으로 太平興國元年이 된다. 태평흥국3년(978)에 조경이 王懷隱, 陳昭遇 등으로 하여금 그가 수집한 방서를 정리 편찬할 것을 지시하였고 14년 이후 淳化3년(992)에 『太平聖惠方』이 완성되었다. 고계충이 진상한 『상한론』은 『태평성혜방』 권8에 수록되었다.

『태평성혜방』이 南宋 陳振孫의 『書錄解題』에 著錄된 이후 후세에 이에 대한 저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 南宋 原刻本 50권을 보존하였는데 후에 50권을 補抄하여 全帙 100권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태평성혜방』의 대부분이 『醫方類聚』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권29 「傷寒門」은 『태평성혜방』 권8의 『상한론』을 수록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고계충이 진상한 본으로 추정된다.

(2) 高本の 特徵

고계충 『상한론』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傷寒敘論」； ② 「辨傷寒脈候」； ③ 「傷寒受病日數次第病証」； ④ 「辨太陽病形証」凡36條； ⑤ 「辨陽明病形証」凡39條； ⑥ 「辨少陽病形証」凡6條； ⑦ 「辨太陰病形証」凡6條； ⑧ 「辨少陰病形証」凡24條； ⑨ 「辨厥陰病形証」凡13條, 이 가운데 1조는 송본에는 없다. 즉 “傷寒六日, 煩滿而囊縮, 此則毒氣在藏, 可下而愈, 宜小承氣湯”條이다. 송본 『상한론』과 대조하면 高씨본 六經病은 124조이다. ⑩ 「辨傷寒熱病兩感証候」 이 절은 『諸病源候論』과 『素問·熱論』에서 摘錄하였다. ⑪ 「辨傷寒熱病不可治形候」； ⑫ 「辨可發汗形証」； ⑬ 「辨不可發汗形証」； ⑭ 「辨可吐形証」； ⑮ 「辨不可吐形証」； ⑯ 「辨可下形証」； ⑰ 「辨不可下形証」； ⑱ 「辨可灸形証」； ⑲ 「辨不可灸形証」； ⑳ 「辨可火形証」； ㉑ 「辨不可火形証」； ㉒ 「辨可水形証」； ㉓ 「辨不可水形証」； ㉔ 「

96) 畢沅：『續資治通鑑』卷3, 上海古籍出版社, 1993. p.11.

97) 錢超塵：『傷寒論文獻通考』, 學苑出版社, 1999. pp.478~481.

辨可溫形証」: '可'와 '不可'를 송본과 서로 대조해 보면 송본에서는 8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唐本 『상한론』 및 『맥경』 권7과 대조해보면 高씨본이 이와 相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高씨본 『상한론』의 六經病 條文과 '가'와 '불가'의 조문은 그 來源이 매우 오래되었고, 또한 隋 이전에 이미 유전되었던 것으로 이는 隋代 이전의 傳本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㉔ 傷寒 三陰三陽을 응용한 湯散 諸方 50首가 있다. 이 가운데 六味靑散方, 甘遂散, 蒸法出汗 등의 방은 송본 『상한론』이나 당본 『상한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송본 『상한론』에서 “神丹安可以誤發”이라 하였으나 神丹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처방은 高씨본 『상한론』과 『천금요방』 권9 「發汗丸」⁹⁸⁾條에 나타난다.

『상한론』 발전사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方과 証이 같은 조로 되어있는가, 아니면 前論後方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의 자료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초기 단계인 즉 육조시대에는 前論後方으로 되어 있다. 즉 전면에는 『상한론』 조문이 있고, 후면에 방이 있다. 『金匱玉函經』이 전론후방으로 되어 있고, 『천금요방』 권9과 권10도 원래는 前論後方이었으나 손사막이 이를 조정하여 “方証同類, 比類相符”⁹⁹⁾하게 하였으며, 高씨본도 前論後方으로 되어 있다.

임역의 『상한론·서』에서 “節度使高繼衝曾編錄進上”¹⁰⁰⁾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編錄’이라는 말은 『상한론』을 編排하여 記錄했다는 말인데, 이는 고계충 본인이나 高씨의 아랫사람이 ‘편록’했다는 말이 아니고 王懷隱 등이 『태평성혜방』을 편찬할 때 ‘편록’했다는 말이다. 『태평성혜방』의 편집 체제에서 每卷의 첫머리에 모두 『諸病源候論』의 글을 실었다. 高씨본의 「傷寒敘論」에서 “論曰: 春氣溫和, 夏氣暑熱”에서 “長幼之病, 多相似者, 此則天行之氣”까지 216자는 『諸病源候論·傷寒病諸候』에서 인용하였고, 다른 부분은 『천금요방』 권9 「傷寒例」에서 적록하였다. 왕희은 등이 高씨본을 ‘편록’할 때 증가시킨 「傷寒受病日數次第病証」과 「辨傷寒熱病兩感証候」는 『제병원후론』과 『소문·열론』에서 따온 것이고, 「辨傷寒熱病不可治形候」의 조문은 「辨脈」, 「傷寒例」, 『제병원후론』, 『소문·열론』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송본 『상한론』, 당본 『상한론』, 『금궤육합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부는 古傳本 고유의 내용이 아니며 왕희은 등이 편록할 때 추가시킨 것이고 그 나머지는 高씨본 고유의 내용이다.

III. 結 論

本論의 研究를 통하여 나타난 唐宋時期 『傷寒論』 形成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 張仲景의 死後에 木簡本인 『傷寒雜病論』의 원문은 점차 亡佚되었으나 이를 후세에 流傳할 수 있었던 것은 魏·太醫令 王叔和의 功績이다. 즉 王叔和는 『脈經』을 撰次한 것 이외에 仲景의 遺著

98) 『備急千金要方校釋』 卷9 「傷寒上」: 前掲書, pp.219~220.

99) 『千金翼方校釋』 卷9 「傷寒上」: 前掲書, p.127.

100) 『宋本傷寒論』 「宋刻本傷寒論·序」: 前掲書, p.1.

인 『傷寒雜病論』을 단순히 수집하여 정리함에 그치지 않고 仲景의 條文을 심사하고 체험한 이후에 意義가 있는 脈·証·方을 채록하는 엄격함을 보였다. 이는 後世에 『傷寒論』, 『金匱玉函經』, 『康平傷寒論』, 『金匱要略』등으로 편찬되었다.

2. 原始 板本인 『傷寒雜病論』의 書名은 張仲景이 명명한 것이다. 原始 傳本은 失傳되었지만 적어도 「脈法」·「傷寒病」 등에 관련된 일곱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編次 부분은 『脈經』本 권7에서 볼 수 있다. 『脈經』本の 『傷寒雜病論』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지만 이미 北宋의 校正醫書局의 교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편차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脈經』本の 특징은 條文이 모두 「病可與不可」條 아래에 편재하였는데, 『傷寒論』의 六經提綱이 빠져 있고 또한 宋本 『傷寒論』에 비하면 條文의 숫자가 적으나 여전히 『傷寒論』의 원시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3. 現存하는 가장 온전한 『傷寒論』 傳本인 唐本 『傷寒論』은 『千金翼方』의 傷寒論이며, 『千金翼方』의 卷9는 「傷寒上」·卷10은 「傷寒下」라 하여 마치 『千金要方』에 날개를 단 듯한 형세를 하고 있다. 『千金要方』 卷9는 「傷寒上」·卷10은 「傷寒下」(실은 卷下는 雜病이다)이며, 卷9에 수록된 三陰三陽의 條文은 모두 49條로 宋本の 398條와 비교하면 매우 심한 차이가 난다. 孫思邈의 공헌은 張仲景의 『傷寒論』을 수집하여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傷寒論』 원문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方證同條, 比類相附」의 방법을 창립하여 후세 「以方類證」파의 기초를 세웠다.

4. 康治本과 康平本 『傷寒論』은 唐代에 日本으로 전해진 『傷寒論』이다. 康治本의 특징으로는 『傷寒論』이 殘本이긴 하지만 조문이 육경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六經은 질병의 날짜를 나타내지는 않고 질병이 淺部에서 深部로 발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康平本의 특징으로는 「太」자가 모두 「大」자로 되어 있고 「眞武湯」이 「玄武湯」으로 되어 있는데 宋 始祖 趙玄朔을 避諱하지 않았고, 隋 始祖 楊堅의 「堅」자가 모두 「韃」자로 되어 있어 避諱한 것으로 보아 隋代의 傳本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康平本 『傷寒論·序文』에는 원래 小注와 旁注가 있고 후인이 增入한 문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원문 아래 두 줄로 배열하였으며, 「可」와 「不可」의 諸篇이 없어 早期 『傷寒論』 傳本の 원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5. 北宋 治平2년(1065)에 林億과 孫奇 등이 奉詔하여 宋本 『傷寒論』을 교정하였다. 이 本은 朝廷에서 欽命하여 校定하였기 때문에 『傷寒論』 定本이 되었다. 宋本과 唐本이 모두 齊梁 古本の 『辨傷寒』 10권에서 나왔지만, 宋本은 唐本을 底本으로 삼지 않고 隋人이 抄寫한 『辨傷寒』 傳抄本을 底本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책 10권이 齊梁 古本 『辨傷寒』 10권본(梁·阮孝緒 『七錄』에 실린 『傷寒論』을 말한다)을 직접 승계한 것으로, 이 판본은 『金匱玉函經』 8권본, 唐本 2권본, 淳化 殘卷本에 비하여 온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6. 高繼衡의 進上本에 관한 기록은 林億의 『傷寒論·序』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林億 등은 考證學的인 이유로 高本을 『傷寒論』校訂의 底本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高本の 특징으로는 25편으로 前論後方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傷寒論』, 『辨脈』과 『傷寒例』, 『諸病源候論』과 『素問·熱論』 등을 많이 인용하였다.

高本은 六朝時代 소수의 의사들의 수중에서 유전되어 온 傳抄本이며, 현재 『醫方類聚』 권29 「傷寒門」의 내용은 『太平聖惠方』 권8의 『상한론』을 수록한 것으로 이것이 高本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문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정담, 1988.
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李茂如 외2인: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人民衛生出版社, 1994.
4.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5. 裘沛然 외22인: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6. 范曄: 『後漢書』, 岳麓書社, 1994.
7. 陳壽: 『三國志』, 中華書局, 1982.
8. 長孫無忌: 『隋書經籍志』卷1, 中華書局, 1985.
9. 司馬光: 『資治通鑑』 권276 권279 권288, 內蒙古人民出版社, 2000.
10. 畢沅: 『續資治通鑑』卷3, 上海古籍出版社, 1993.
11. 趙開美 原刻: 『仲景全書』, 대성출판사, 1984.
12. 皇甫謐: 『針灸甲乙經·序』, 人民衛生出版社, 1979.
13. 王燾: 『外臺秘要』, 成輔社, 1975.
14. 孫思邈 著·李景榮 외5인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8.
15. 張璐: 『千金方衍義』,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6. 朱佑武 校注: 『宋本傷寒論校注』,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17. 張仲景 著 黃一九 編輯: 『古本康平傷寒論』,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18. 成无己: 『注解傷寒論』《中國醫學名著珍品全書》,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5.
19.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學苑出版社, 1999.